

바다 발보다 물에 익숙해진 잠녀

<2부> 발로 딛는 잠녀들의 삶 100. 제주시 수협어촌계

등록 : 2009년 02월 10일 (화) 10:59:24
최종수정 : 2009년 02월 10일 (화) 10:59:24

고 미 기자 ✉ popmee@hanmail.net



**제주시 수협 내 33개 어촌계 중 종패 사업 기대 거는 곳은 1곳 불과
10명 중 7명 60대 이상...바다는 제자리에 있는데 잠녀는 하나둘 사라져
자율관리·엄격한 규율 등으로 바다 지키는 한편 개발 순응한 변화 기대도**

살기 위해 사람들이 도심으로 흘러드는 것과 달리 바다의 고민은 커졌다. 오겠다는 사람들을 내칠 수 없어 가슴을 내어주면서도 바다는 자꾸 멀어진다.

예전만큼, 아니 이전보다 더 부지런히 손발을 놀리지만 바다가 내어주는 것은 갈수록 인색해진다. 바다에 대한 희망은 계속된다. 하지만 문제는 잠녀다.

이제는 찾기 힘든 옛 명성

제주시 수협이 관리하는 어촌계는 33곳이나 된다. 느린 걸음으로 따라 가다보니 이들 바다에서 사계절과 만났다.

바다가 계절을 땃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하지만 바다 발보다 물에 익숙해진 잠녀들을 만날 때마다 어깨에 무거운 짐이 얹혀진다.

잠녀들의 노젓는 소리가 거세질 만큼 거칠고 험한 동편 바다지만 잠녀들의 바다 의존도만은 다른 바다 못지 않다.

“머정(큰 물건이 따르는 운)’에 따라 물건 희비가 달라진다”는 믿음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하지만 넉넉한 바다 때문에 ‘부촌’ 소리를 들으며 수협 지소가 생기거나(용담 어촌계), ‘먹돌바다’(산 지어촌계), 무거운 망사리를 대신 들어주려 남편이나 자식이 바다까지 나오는 소라마중이니 물건을 쌓아두고 꺼내온다는 고팡바다 같은 말은 이제 다 옛 것이 됐다.

아예 바다를 내어주고 새로운 살 길을 모색(곽지)하거나 체험어장이나 어촌체험마을 등에 기대를 거는 모습이 익숙하다.

물건이 많았을 때는 아무리 ‘매서운 추위’라도 바다의 품을 파고드는 잠녀를 내치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는 선뜻 몸을 맡기는 잠녀를 찾는 게 더 어려워졌다.

바다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시나브로 세월을 타고 가는 잠녀들을 아쉬워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제주시 수협 내 어촌계 소속으로 물질을 하고 있는 잠녀는 모두 1995명, 10명중 7명(1406명)은 60대 이상으로 여기서는 ‘환갑’명함은 학생증 취급을 받을 판이다.

이에 비해 30-40대 잠녀는 129명이 전부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바다를 기다리다간 사람이 남아있지 않겠다”는 푸념이 이해가 된다.

#물건 기다리는 대신 철저한 관리 눈길

33개 어촌계 중 종패 사업에 대한 기대를 표시한 곳은 한 곳 뿐이다. 매월을 신업바다만큼은 오분자기 종패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하지만 천초 의존도가 높은 조천에서는 전복 종패 사업을 병행하느라 돈 되는 천초발만 줄어든다며 바다 특성에 맞춘 어업 정책을 강도높게 요구했다.

물건만 있다면 언제든 바다로 돌아가겠다는 잠녀들을 위해 어촌계 차원의 변화도 눈을 끈다.

앞장서 자율관리어업을 내세우고 있는 동귀나 풍성한 바다는 스스로 만드는 것이라며 자생력을 키우는데 주력하고 있는 하도, 엄격한 규율로 어장을 관리하고 있는 종달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도시에 가까워, 또는 숨겨놓은 비경 등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늘면서 바다는 몸살을 앓고 있다.

해수욕장 주변에 관광시설이 들어서면서 생각지도 않았던 생활오수로 한번, 하수종말처리장이나 화력 발전소 등 사회기반인프라가 확충되며 또 한번, 어떤 악을 써도 바다가 앓고 있는 몸살을 쉽게 치유하기 어렵다.

'뚝짐을 못질 정도면 스스로 작업을 포기했다'(북촌)는 잠녀들이 스스로 바다를 떠나고 있다.

억척스러움은 타고났다는 동편 잠녀들이다. 바다가 돌아오길 기다린 만큼 그녀들이 돌아오길 기다리는 것은 부질없는 일인가.

발로 달는 제주 잠녀 >끝<